

회 요 세 평



박철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장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연말 연초가 되면 으레 저마다 전년의 회고와 전망·다짐들을 쏟아낸다. 여기에 덩달아 필자도 가세하는 것이 민망하기는 하지만 신년벽두에 지난해 금융권 동향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의 전개를 관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몇 개 눈에 띄는 뉴스를 뽑아 보았다.

2019년 중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불안전파매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독일 국제금리 등과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사모펀드(DLF)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금리가 수익약정 수준보다 큰 폭 하락하여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된

골라 보는 금융권 소사(小事)

한다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의 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암호자산(crypto-asset)'으로 처음 명명한 이래 '화폐'로 불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은 더 견고해졌다. 2019년 중 암호자산 종류는 5,000개를 넘어섰으며, 대표적인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코인마켓캡 기준)은 연초 3,746.69미달러에서 등락하여 연말 7,271.27미달러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본격적으로 오픈뱅크(open banking)이 도입·시행되었다. 오픈뱅크란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이 보유한 고객의 금융정보를 표준화된 형식(API)으로 제공하여 핀테크 업체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오픈뱅크의 시행으로 이제 하나의 은행 앱으로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정보까지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이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다양하고 혁신적인 특화서비스가 출시되어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2019년 중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세 번째로 예비인가를 받았고, 통화옵션 키코계약 피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분쟁조정결정이 있었다. 온라인대출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계해 주는 P2P대출법(온라인투자자제 금융업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핀테크 산업에 힘을 실어 주었다. 반면,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아직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키코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크게 위축된 파생상품시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투자자보호 없이 금융산업의 발전은 없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는 금융시장이 성장할 수 없다. 파생상품시장이거나 핀테크 산업을 어서 빨리 키우겠다는 조금증으로 투자자보호나 금융보안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2020년은 우리 금융권도 금융기관과 투자자·금융소비자가 동반자로 공생하는 건전한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멀리 길게 보고 준비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우한폐렴’ 차단 모두가 동참하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를 향해 퍼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망 80명·확진자가 2,774명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루 사이 사망자가 두 자릿수로 불어날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성을 띠고 있다. 중국 당국은 발병지역 우한시를 봉쇄하고, 수도 베이징까지 봉쇄에 들어가는 등 차단에 국력을 쏟고 있으나 전염병 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화권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각국의 ‘우한 폐렴’ 확진자는 태국 8명, 싱가포르와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각 4명, 한국과 미국 5명, 프랑스 3명, 베트남과 핀란드, 이탈리아 각 2명, 네팔과 케냐가 각각 1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5명의 확진자가 정부의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격정한 것은 우한시에서 들어온 3번째 확진자가 의료기관에 격리되기 전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외출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접촉 규모에 따라 추가 격리 및 감시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차원의 철저한 추적조사와 방역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잠복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가. 국가 및 자치단체의 철저한 방역활동이 절실 하지 만 근본적으로 국민 각자가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다. 외부 활동을 하면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 꼼꼼히 손 씻기를 해야 한다. 손 씻기만 잘해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조언이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전염병의 확산자가 정부의 격리 치료를 받고

정치권이 전하는 아전인수식 ‘설 민심’

설 연휴를 보낸 정치권이 ‘설 민심’을 전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기간 확인된 민심은 이구동성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야가 크게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민생예산과 정책이 발목 잡기는 안되며,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반면 야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점은 긍정하면서도 “일당독주로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으니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전하는 민심이다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다’로 귀결됐다”고 했다. 광주·전남 지역 민심을 보는 지역 대동맹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선 해석이 달랐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았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여야가 싸우지 말고 다들 협치 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같은당 이형석 최고위원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국정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 좋은 후보를 선정하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격려가 많았다”고 했다. 반면 야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점은 긍정하면서도 “일당독주로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으니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전하는 민심이다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다’로 귀결됐다”고 했다. 광주·전남 지역 민심을 보는 지역 대동맹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선 해석이 달랐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았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여야가 싸우지 말고 다들 협치 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봉철의 골프기인문학을 만나다



<12-1> 슌페터의 골프경영

법학을 전공하셨으나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겸직전문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교계의 귀공자로 세련된 보수주의자로 불렸다. 서재 이외에 한눈을 팔지 않았던 경제학자 슌페터는 케인즈와 함께 경제학의 양대산맥이다. 혁신의 본질은 창조적 파괴로서 기업가 혁신이 경제성장

하게 된다는 것이다. 슌페터는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을 플레이어로 인한 혁신이며 이를 기업가 정신이라 분석한다. 부의 발전 속에서도 플레이어가 거대한 공룡이 되면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점차 소멸하게 되어 발전이 없는 정체되는 위치에 접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술의 발전은 끊임없이 기존의 기술체계를 부수고 새로운 체계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플레이어의 창의적인 기술은 라운드를 역동감 있게 해 주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게 한다. 갑나무 헤드에서 텅스텐 헤드, 스틸에서 그라파이트로, 거리측정에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이어지는 골프클럽의 진화 등을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은 고전적인 기술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바로 창조적 파괴이다. 라운드의 가치는 총요소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얻을 수 있는 한계효용이다. 이는 생산요소의 가치가 아니라 라운드 시에 플레이어가 얻을 수 있는 주관적 한계효용이다. 라운드의 주체는 플레이어 자신이기 때문이다. 플레이어의 행동은 합리적이기 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이 높다. 또한 플레이어가 얻는 완전한 정보 아닌 불완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게임에 임한다. 플레이어가 인위적인 룰이나 배려는 재미가 없으며 오히려 지루하면 초대하기

기업가정신으로 혁신의 스윙을 하라



로운 스트로크가 좋다는 개념이다. 함께 효용 학파의 안정자로 수리적 균형 개념을 라운드에 도입하여 혁신적 게임방식이 이론을 많이 가져간다는 이론이다. 슌페터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도전과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보내려는 혁신을 위한 개념, 그리고 변화 속에서 자신의 스킴을 지키는 상품화로 3단계를 구분한다.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변화는 기존 라운드를 수시로 혼란스럽게 한다. 창조적 파괴이다. 이윤을 쫓는 플레이어가 혁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발명보다는 혁신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

고 혁신보다는 상품화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충분한 자본을 가진 플레이어가 보다 많은 혁신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고수는 혁신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얻는 데 성공한다. 이를 본 다른 플레이어들도 이 혁신적인 고수의 창조적 파괴 행위를 곧바로 모방한다. 그 결과 라운드 전체적으로 이윤이 소멸하게 되지만, 이러한 창조적 파괴는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게 된다. 이때 플레이어의 기업가정신이 쇠퇴하면 라운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하락한다. 안정만을 추구하면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위험한 기회를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정신이 기업가 정신이다.

슌페터는 라운드의 동학적 접근을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카를 마르크스와 조셉 슌페터이다. 슌페터는 혁신이라는 플레이어가 존재는 불확실성 아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결단하는 주체이다. 즉 플레이어 이윤은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감수한 대가며 정당성을 갖는 초과 이윤이다.

골프칼럼니스트, MFS골프코리아 소속 프로, 체육학박사

특 지 광 장

이번 겨울도 우수를 지나 겨울의 막바지를 치닫고 있으며, 군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나기 소방 총력전도 이제 그 결과가 눈앞에 와 있다. 겨울 기간 중 화재 통계를 분석해 보면 매년 주택 화재 발생률·인명피해율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화재의 30%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이다. 농촌 지역인 화순군의 경우도 주택 화재 중 화목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주

화목보일러 안전사용으로 따스한 겨울을

택 화재로 이재민 발생과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했는데 이역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였다. 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 설치와 증가 추세에 있는데 반해, 사용자의 화재안전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화목보일러가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주범이 되는 것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 이제부터라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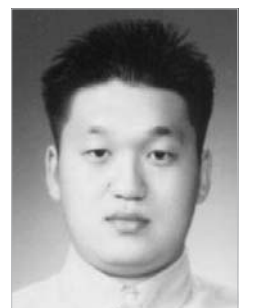
및 사용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화목보일러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건축물 외벽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하고, 둘째 주택의 경계벽은 콘크리트나 벽돌 등 불연성 재질로 시공하며, 셋째 보일러실 주변에 시멘트 벽돌 등으로 방화벽을 설치해주고, 마지막으로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 등의 자재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사용 시 안전 수칙으로는 첫째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둘째 보

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며, 셋째 목재를 한 번에 많이 넣지 않고, 넷째 젖은 나무 사용 시에는 투입구 안을 자주 청소하며, 다섯째 연통 청소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화목보일러화재 원인은 기기 자체 결함보다는 대부분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및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므로, 사용자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제거 확인한다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 초기 진화 및 신속대피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 /화순소방서 화순 119안전센터 박병채

설명절 후유증 최소화하자

기 지 수 습

설은 음력 1월 1일로 새해를 맞는 우리의 고유명절이다.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린다. 기풍에 따라 한 해 동안 복을 빌며 복조리를 걸고 떡국도 먹는다. 이처럼 우리 고유명절인 설은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안겨주는 특별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설 명절 기간 먼 타지로 떠나 살던 가족 친지들이 고향을 찾고, 한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았다. 하지만 한강의 설 연휴가 이제 고금 부주의 및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므로, 사용자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제거 확인한다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 초기 진화 및 신속대피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 /화순소방서 화순 119안전센터 박병채



고광민 경제부 차장

증을 호소할 셈이다. 명절 후유증은 가사노동이나 운전 등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무엇보다 크다. 명절을 맞아 한 자리에 친척들이 모여면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설 수 있고 사택과 처트레스와 후유증을 호소할 일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남편은 남편대로·주부들은 주부들대로·미혼남녀는 미혼남녀대로·미취업자는 미취업자대로 각각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탓이다. 명절 뒤 자식들이 떠난 빈자리에 고향 부모님이 겪게 되는 정신적 공허감과 상실감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보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명절 행사가 쉬운 일만은 결코 아니다. 실제 지난해 설 연휴가 끝난 후 한 온라인 매체에서 성인남녀 668명을 대상으로 명절 후유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에 가까운 사람이 명절 뒤 여러 스트레스로 후유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nursing care, elderly care, and emergency services.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1989년 6월 29일 창간
회장 박희필 대표이사 발행인·편집인 김효남 주필 노斗憲 편집국장 박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